

힙합의 발전에 따른 힙합패션의 발생과 변천

이 지 현 · 정 은 숙*

명지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대학원 · 명지대학교 생활과학부 조교수*

The Origination and Changes of Hip-hop Fashion on the Development of Hip-hop

Ji-Hyun Lee · Eun-Sook Chung*

Dept. of Industrial Design, Myongji University
Division of Human Ecology, Myongj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resent fashion phenomenon by considering the types of Hip-hop, that shows the origination background and special feature.

Popular music plays the most significant role in this 'age of culture' by its musical and visual methods through mass media. A fashion reflects and represents the culture of it's era. From the early 1990's, a new fashion style called 'Hip-hop' has become a universal hit among teenagers and even among those in 20s and 30s.

As we can see from these three points, Hip-hop fashi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being sporty, borderless and genderless. In other words, fashion represents individuals' unique characters and their culture. This is why the study of fashion trends such as Hip-hop is important: because they can give us a series of fascinating insights into all sorts and conditions of men and women in our time: how they view themselves and how they choose to relate to other people, whether of their own age, or otherwise.

Key Word : Hip-hop, Hip-hop fashion, sportive, borderless, genderless

힙합, 힙합패션, 스포티브, 보더리스, 젠더리스

I. 서 론

인간의 생활문화 중에서 인체에 가장 밀착하면서

정신적인 내면세계를 표현해 주는 복식은 한 문화
권내의 사람들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나타내며, 특
히 젊은이들은 문화의 기본 가치관, 관습, 도덕규범

에 반항하면서 그들의 새로운 문화를 주창하고 합법화하려는 전위적 유행현상으로 복식을 사용하고 있다. 한 시대의 대중문화와 패션은 유행이라는 상호동질성을 기반으로 공존하고 있는데, 현대에 이르러 대중문화가 현대패션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이러한 젊은이들 특유의 동조와 개성의 발현에 대한 욕구가 대중매체를 통한 시각화 경향과 결합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대중매체의 발달은 대중예술이 인간 내면의 미의식을 표현하는 패션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계기를 제공해 준 것이다.

최근 들어 음향이나 비디오 상품을 합친 문화상품의 규모가 커졌으며, 199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뮤직비디오, 홍콩의 스타TV, MTV 등의 규모도 비약적으로 커지며 국제화되었다. 이제 대중음악은 음악 본래의 정감적 요소에 댄스, 미술 등 시각적인 분위기가 결합된 음악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음악인과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음악으로써 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패션 등의 시각적 연출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20세기 중반 팝문화의 탄생과 록뮤직의 선풍은 복식의 스타일에서 청소년만의 특유한 양상을 형성했으며, 이는 대중음악 가수들이 음악적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에 더하여 시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패션을 사용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발생된 힙합음악도 현재 많은 나라의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하위대중문화를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부각시켰고, 젊은이들에게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힙합패션을 창조, 발전시키고 있다. 이처럼 젊은 세대의 패션이 대중패션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은 과거로부터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최근처럼 대중문화와 밀착되어 패션을 주도하는 경향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힙합의 발전에 따른 힙합패션의 발생과 변천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의 새로운 문화와 유행을 예측하는데에도 중요

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힙합의 발생과 문화적 요소를 살펴보고, 둘째, 힙합의 시대별 발전과 이에 따른 힙합패션의 변천을 고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990년대에 나타나고 있는 힙합패션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힙합의 발생과 문화적 요소

1. 힙합의 발생

1980년대 레이저니즘¹⁾이 나타나기 전까지 미국 내 많은 아프리카-아메리칸들은 가난하지만 어느 정도 백인들과 큰 차이없는 사회적 혜택을 받았다. 따라서 초기 힙합은 현재와 같은 과격함의 대명사는 아니었다. 그러나, 아직도 노예주를 꿈꾸는 남부 백인 보수파의 후원으로 대통령이 된 레이건 시대의 출범을 기점으로 백인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졌고, 흑인에게 돌아가던 각종 혜택들도 삭감되어 흑인동네는 가난한 빈민가로 전락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힙합음악들은 사회구조적 모순의 비판, 정치적 발언, 흑인의 연대의식강조, 인종차별에 대한 과격한 불만 등이 추가 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흑인들에게 지극지극한 일상으로부터의 한시적 탈출을 제공하고, 권력을 역전시켜주는 힙합은 헐렁대는 춤과 끝없이 지껄이는 랩으로 형상화되어 많은 흑인들에게 위안을 주었으며, 삶 그 자체가 되었다.²⁾ 니거(검둥이)에서 아프로-아메리칸으로 호칭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사회전반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미국흑인들의 희로애락을 담은 음악과 문화전체가 바로 힙합인 것이다. 이렇게 미국 뉴욕의 흑인 할렘가에서 10대들에 의해 흘러나온 이 특별한 문화조류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자유로움과 반항정신을 공유하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창조하려는 전

1)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시대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가리킴.

2) 중앙일보, [문화지도]76. 힙합(1), 1997. 12. 17.

세계 신세대들을 중심으로 패션, 춤, 노래, 의식까지도 지배하는 힙합스타일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2. 힙합의 문화적 요소

힙합은 음악만도 춤만도, 그리고 패션만도 아닌 이들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문화로서의 개념이다. 힙합을 춤으로만, 음악으로만, 또는 패션취향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힙합의 어느 일면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철학가이자 DJ, 또 MC이기도 한 케이알에스-원(KRS-One)은 힙합을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문화'라고 평하기도 했다.³⁾ 따라서 힙합은 하나의 문화로서 그 요소를 모두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일반적으로 MCing, DJing, 댄스, 그래피티(graffiti)를 그 대표적 요소로 든다.⁴⁾ 본 연구에서는 힙합음악, 힙합 댄스, 그래피티의 세가지 요소로 나누어 보았다.

1) 힙합음악

최초의 인간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고고학계의 정설인데, 20세기 지구촌을 주름잡는 대중음악 역시 인간의 조상처럼 아프리카혈통을 이은 흑인들의 몸에서 출발하고 있다.⁵⁾ 대중음악은 세대, 장소 그리고 인생관에 의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젊은이들은 소수인종(흑인)과 하층계급의 음악을 선택하였다.⁶⁾

힙합음악은 대표적인 흑인음악인 비밥(하드밥)이나 스윙 혹은 쿨 등의 재즈음악과 무관하지 않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를 품지했던 대중적이지만 그 음악적 수준이 높았던 디스코에서도 힙합

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다. 1990년대 있어서 힙합은 이 시대의 재즈인 것이다. 힙합은 전혀 새롭지만 예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며, 랩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의 노래에서 들려지듯 그 시도는 아주 예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들어 이러한 힙합의 강세는 다른 장르에까지 확대되어 이미 머라이어 캐리(Mariah Carey)는 자신의 최근 앨범 'Butterfly'에서 힙합 음악가 퍼프 대디(Puff Daddy)와 함께 음악을 만들었고, 팝발라드의 여왕으로 불리는 셀린 디온(Celine Dion)도 새앨범 'Let's Talk About Love'에서 힙합을 사용한 'Treat Her Like a Lady'를 출판하였다. 국내에서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김건모의 1집 타이틀곡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가 발표되고부터 랩을 이용한 힙합음악이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랩과 힙합은 새로운 음악으로 받아들여져 우리에게 맞는 힙합 스타일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가수들에 의해서 시도되고 있는데, Deux의 뉴 잭스윙, 서태지와 아이들의 갱스터랩을 거쳐, Up Town, 지누션, One Time, G.O.D. 등이 힙합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

2) 힙합 댄스

10대 백댄서들이 좋아하는 춤은 힙합 댄스, 브레이크 댄스(Break Dance), 하우스 댄스, 소울 댄스 등인데, 이 중 가장 좋아하는 댄스는 힙합 댄스로 몸에 웨이브를 주면서 몸을 꺾고 돌리며 춤의 동작 끝에 힘을 주어 끊기 때문에 춤에 각이 서는 것이 특징이다.⁷⁾ 또한 힙합 댄스는 다른 춤들과 달리 목을 이용해 추며 상체가 마치 파도를 타는 것처럼

3) 동아일보, 1997. 5. 13.

4) 동아일보, 1997. 5. 13.

5) 중앙일보, [문화지도]76. 힙합(1), 1997. 12. 17.

6) 정경희·유태순, "스트리트 패션의 발생과 변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제1권, 제1호, pp.71-83.

7) 주간조선, 1998. 8. 2. [백 댄서 열풍].

유연하게 흔들리는 동작이 기본이다. 재즈 댄스가 힘찬 직선, 십자 방향으로의 정형화된 움직임이 기본이라면 힙합 댄스는 엇박자의 리듬을 타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일반적인 댄스의 기본틀을 깨면서 자유분방하고 재미있는 동작들이 많다. 힙합 댄스는 플로어 워크(floor walk)⁸⁾로 워밍업하듯이 춤출 자리를 만들어 놓고 나서 큰 동작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회전하는 브레이크 댄스나 헤드 스피ن(head spin)⁹⁾, 관절을 꺾어 각을 만들 듯이 추는 웨이브(wave)¹⁰⁾ 등이 힙합 댄스의 큰 동작들이고 이 동작들을 합쳐서 자유롭게 추는 것이 바로 프리 스타일(free style)이다. 힙합 댄스는 '비-보이(B-boy)'로 일컬어 지는데, 비-보이(또는 B-girl)에서의 'B'는 브레이크 댄스(breaking)를 가르키며, 곧 비-보이는 브레이크 댄스를 전문적으로 추는 사람을 일컫는다. DJ들은 간혹 음악을 틀다가 브레이크(break)¹¹⁾부분을 계속하여 들려주는데, 비-보잉(B-boying)은 이 때 이 브레이크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원래 그 기반은 디스코 댄스이며, 차츰 독자적인 브레이크인(breakin)만의 기술 개발로 1980년대 그 전성기를 이루었다. 비-보이는 놀이문화로 출발하여 이제는 전세계를 춤추게 만든 문화로써 흥겨움을 참지 않는 흑인들의 자연스러움이 만들어낸 멋이다.¹²⁾

힙합이 비교적 뚜렷한 음악적 형태를 갖추고 국내에 들어온 것은 초반의 브레이크 댄스붐을 통해서이다. 영화 '플래시 댄스',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뮤직비디오 등에서 단편적으로 미국 팝스타들의 춤을 한국 청소년들이 무작정 따라하면서 흑인의 자아 리듬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몸에 입력되기 시

작했다. 팝스타들은 흑인들이 노예시절부터 개발한 노동무, 축 케이크 워크, 래그 타임, 재즈 댄스 등을 차례로 소화해 춤을 만들었지만, 한국의 청소년들은 브라운관의 화려한 조명아래 비취지는 춤의 외면만 받아들여 국내의 초기 힙합문화는 유행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한국 대중가요계에 등장한 댄서들에 의해 힙합과 힙합 댄스의 한국화가 시작되었다.¹³⁾

3) 그래피티

낙서예술의 모태가 된 것이 바로 그래피티로 음악과 시와 춤과 그림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문화로써의 힙합의 특징을 나타내준다. 태깅(tagging)은 그래피티 예술가들이 작품을 완성하고 자신들의 이름이나 별칭(initial)을 그리는 것을 말하며, 이들을 테거(tagger)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피티는 벽이나 전철 또는 다리교각 같은 곳에 에어스프레이 페인트로 독특한 모양의 글자, 그림, 또는 문구를 그려 넣는 것을 가리키며, 범죄와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의 한 형태이다.<사진 1> 브룩클린의 초기 그래피티들은 깨끗한 건물이나 벽, 지하철에 그림



<사진 1> 벽의 그래픽 낙서
(The Source, #109, 1998. 10.)

8) 큰 동작을 하기전의 준비 동작.

9) 머리를 축으로 거꾸로 서서 몸을 돌리는 춤.

10) 웨이브(Wave)는 암 웨이브(Arm Wave), 몸통 웨이브(Body Wave) 또 웨이스트 웨이브(Waist Wave) 등이 있다.

11) 노래 중간에 비트만 나오는 구간.

12) 동아일보, 1997. 5. 13.

13) 중앙일보, 1997. 12. 17.

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경찰에게 적발되어 도망가다 총에 맞고 사망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주류문화에 대항하는 저항문화답게 백인이 주인공인 주류문화에 대항하는 것이기도 해서 캔버스, 화랑이라는 고정된 표현의 틀을 벗어나 지하철, 동네 공터, 공원 벽 등 생활 주변의 장소에서 가장 자유로운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주류문화에 대한 반발이었지만 현재 젊은이들의 카운터컬처 한 가운데 자리잡은 힙합문화에 있어 '낙서 예술'은 새로운 조류의 예술이며, 단순한 낙서가 아닌 장난스런 캐릭터들에서 힙합 음악가들의 메시지, 현실을 풍자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¹⁴⁾

힙합의 전성기를 맞이 시작한 1980년대 중반이 되면서 그래피티는 단순히 아이들의 낙서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장르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오늘날에 와서 그래피티 예술가로서 명성을 떨치기도 하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각 도시마다 대표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작품전을 열기도 한다.¹⁵⁾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미스터에코는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옷에 그래피티 형태의 로고를 찍어 팔기 시작해 그것이 선풍적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그래피티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잡게 되는 발전을 가져오기도 했다.¹⁶⁾

국내에서는 H.O.T.의 2집 출판시 그룹 멤버들의 이름을 그래피티형 로고로 만들고, 뮤직 비디오의 배경으로 그래피티를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그래피티를 이용한 악세서리나 무늬 등이 유행하고 있다.

III. 힙합의 발전에 따른 힙합패션의 시대적 변천

1. 1980년대

힙합 초기인 1980년대 중반 래퍼들의 스타일인 '올드 스쿨'은 처음에는 흑인 음악인 펑크(funk)와 비슷한 느낌으로 전개되다가 점차 브레이크 댄싱적인 스타일에 적합한 스타일로 변해갔다. 패션은 스포츠 웨어로 브레이크 댄스를 격렬하게 출 때 편한 пам복이나 트랙 수트, 헤드 스펀을 할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자가 필수 아이템이다.<사진 2> 처음에는 스포츠 웨어가 중심이 되는 단순한 패션이었지만 나중에는 고급 브랜드, 번쩍이는 금볼이 액세서리들을 착용하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독특한 패션 스타일로 정착되었다. 무채색의 모노톤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풍기는게 특징이다.



<사진 2> 스타킹을 쓰고 운동복을 입은 힙합그룹 The Frip Mods Squad(The Source, #109, 1998, 10.)

공격적이고 폭력지향적인 초기 힙합에 대한 대안으로 19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탄생한 새로운 스타일의 '뉴 스쿨'은 고급 브랜드와 금장신구를 제외하고 자연스러워진 힙합 패션 스타일로 험령하게 큰 원색의 셔츠와 팬츠, 아프리카를 상징하는 다양한 색채의 가죽 악세서리들이 유행했다. 이같은 패션의 변화는 힙합 음악가들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폭력과 총기 사용을 찬양하는 가사들이 힘을 얻고 흑인들이 결국은 자기 손으로 자기를 죽이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퍼블릭 에니미(Public Enemy)¹⁷⁾,

14) 동아일보, 1997. 5. 13.

15) Newsweek, 1996. 3. 6., p.58.

16) 동아일보, 1997. 5. 13.

17) 83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Public Enemy는 플라보르 플라보, 디제이 터미네이터 엑스(DJ Terminator X :본명은 노

케이알에스 원¹⁸⁾ 같은 힙합 음악가들이 앞장서서 폭력을 쓰지말자고 호소했으며, 이 영향을 받아 패션도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색은 밝아지고 다양해졌으며 악세서리도 강한 금속에서 부드러운 느낌의 가죽으로 바뀌었다.

2. 1990년대

1990년대의 패션 또한 음악 스타일과도 깊게 연관되고 있는데, 힙합 음악의 발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LA를 중심으로 한 '웨스트코스트 힙합'과 뉴욕으로 대표되는 '이스트코스트 힙합'이다. LA를 중심으로 한 웨스트코스트 힙합은 흔히 갱스터랩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갱들이 하는 랩이고 갱스터 래퍼들 중에 실제로 갱 출신들이 많아서 이름이 갱스터랩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LA의 비참한 계도 상황을 반영하는 과격한 가사 내용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총기 사용이나 폭력에 대해 찬양하는 살벌한 가사, 악센트와 비트는 강하지만 템포가 느려 매우 음산하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 사운드가 특징이다. LA를 중심으로 한 웨스트코스트 힙합은 스누프 도기 독(Snoop Doggy

Dogg)¹⁹⁾, 독 파운드(Dogg Pound), 닥터 드레(Dr. Dre), 우 탕 클랜(Wu Tang Clan)²⁰⁾ 등이 대표인데, 우 탕 클랜의 영역은 단지 음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 웨어(Wu-Wear)라는 패션브랜드를 만들어 의류제품을 선보이고 있는가 하면, 우 탕 클랜의 멤버 중 Rza는 앞으로 우 몰(Wu-Mall)이라는 백화점과 음식점에까지 사업을 확장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²¹⁾ 웨스트코스트의 힙합 패션은 컬러풀하고 화려한 색상을 선호하고 세련되면서도 유행에 민감하다.

뉴욕으로 대표되는 이스트코스트 힙합에 대표되는 그룹은 퍼프 대디(Puff Daddy), 노토리어스 비아이지(Notorious B. I. G), 메이즈(Mase)등이며, 웨스트코스트가 펑크적인 사운드가 강하다면 이스트코스트는 하드코어(hardcore)²²⁾적인 사운드가 강하고 가사 내용도 자아 성찰적이고 심오한 것들이 많다. 패션은 체크 무늬 남방으로 대표되는 허름하고 낡은 스타일을 선호한다.

IV. 1990년대 힙합패션의 경향

1. 스포티브(sportive)

만 로저스로 이다) 등을 영입하여 트리오로 라인업을 갖췄으며 랩과 힙합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흑인 음악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 즉 울분을 서슴치 않음으로써 단시일 내에 주목을 끌었다.

- 18) 힙합 역사에 있어 랩 스페셜리스트로 많이 거론되는 사람으로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 길거리에서 랩을 하며 살아갔었는데 그가 유명해진 것은 지금은 거의 사라져버린 배틀랩(돈을 걸고 즉흥적으로 논리정연한 말싸움을 하는 것)을 잘했기 때문이었다. 이 배틀랩이라는 것은 바로 재즈에 있어서 즉흥연주와 굉장히 유사하다.
- 19) 빌보드 뮤직 어워드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최고 남성 아티스트'와 최고 랩, 힙합 아티스트부문 트로피를 차지했으며, Snoop Doggy Doggy가 차갑게 내뿜는 랩은 가난과 범죄로 얼룩진 흑인 민가의 현실과 자신이 간직 있던 웨이 사이드 카운티 형무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20) 발매 첫주에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한 가장 창조적인 힙합 아티스트로 주요 멤버는 Rza, Gza, Inspecta Deck, U-God, Ol' Dirty Bastard(Osiris), Masta Killa, Chef Raekwon, Method Man, Ghostface Killah의 9명이지만 이들뿐 아니라 뉴욕 Staten Island(그들은 Shaolin이라 부른다)에 기반을 두고있는 수백명에 이르는 Wu-Family도 모두 Wu-Tang의 구성원이며, Wu-Tang Clan이란 이름으로 앨범을 내놓는 사람은 위의 9명이나 Wu-Family의 멤버들도 각자가 따로 그룹을 형성하거나 솔로로 활동을 할 뿐 아니라 서로 앨범제작에 도움을 주고 참여하기도 한다.

21) Sport & Street, COLLEZONI, N.6, p.128.

22) 극단적이고 노골적이며 심각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

음악적으로는 70년대 말 펑크와 함께 태어나 많은 언더그라운드 록 밴드들이 하드코어적 음악을 했음. 대표적인 밴드는 콘(Korn), 데프톤즈(Deftones) 등.

<표 1> 시대별 힙합과 힙합패션

Style	올드 스타일	뉴 스타일	이스트코스트(뉴욕)	웨스트코스트(LA)
시 대	1980년대		1990년대	
대 표 힙합 그룹	Run-DMC LL Cool J	Public Enemy KRS-One	Puff Daddy, Mase Notorious B.I.G	Snoop DoggyDogg Dogg Pound, Dr. Dre
음악경향	처음에는 흑인음악인 펑크와 비슷한 느낌으로 전개 점차 브레이크 댄싱에 적합한 스타일로 변모	가사에 사회비판적이고 교육적인 메시지 샘플러의 등장으로 초기의 힙합보다 한결 다양하고 세련된 사운드를 만듦	하드코어적인 사운드가 강하고 가사 내용도 자아 성찰적이며 심오함	펑크적 사운드가 강함 악센트와 비트는 강하지만 템포가 느려 매우 음산하고 무거운 느낌을 줌 -갱스터 랩 총기 사용이나 폭력에 대해서 찬양하는 살벌한 가사
패션경향	스포츠 웨어, 모자 등 몸이 많이 움직이는 춤을 추기에 편한 복장 금 액세서리 선호 무색 모노톤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풍기는게 특징	야구모자 부드러운 느낌의 아프리카권 상징하는 다양한 색상의 가죽 액세서리 현명한 원색 셔츠와 팬츠 색이 밝고 다양	컬러풀하고 화려한 색상을 선호 세련되면서도 유행에 민감	체크무늬 남방 허름하고 밝은 스타일 밝은 색상

1990년대 거리엔 1950년대 서퍼를 호시로 스케이터 보더, 스케이터 등의 거리 스포츠와 1980년대 말부터 두각을 나타낸 랩과 브레이크 댄스를 즐기는 청소년 하위문화 집단의 스타일이 스트리트 패션으로 대두되었다.

스포티브 룩의 아이템은 후드가 달린 티셔츠와 점퍼, 앞 여밈이 지퍼로 된 카디건<사진 6>, 재킷, 트레이닝 바지처럼 허리를 고무 밴드나 끈으로 처리한 바지 등이 대표적이다. 1950년대 북미 사람들이 해변에서 착용했던 버뮤다 팬츠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남, 녀 청소년 의상으로 정착되었으며, 특히 1990년대 들어 거리농구의 붐으로 이 팬츠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랩이나 힙합을 즐겨 청취하고 경쟁심보다는 놀이적 성격을 띤 거리농구를 하며, 거기에 걸맞은 의복을 착용한 청소년의 모습은 외양을 중요시하고 감각적인 것을 선호하는 현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묘사된다. 운동복은 본래의 스타일 그대로 혹은 변형된 형태로 청소년의 신체에 대한 관심과 비례하여 일상복, 학복으로 유행되었다. 운동할 때 무릎까지 오는 버뮤다 팬츠, 품이 넓은 셔츠 및 복사뼈까지 오는 값비싼 농구화, 챙달린

모자의 착용, 전혀 다른 스타일과의 매치 및 겹쳐입기, 장신구와의 조화 및 직접 무너그리기로 시각적 효과를 강조하여 청소년은 자신만의 개성을 나타내고 내고 있다.<사진 3> 그래서 1990년대 힙합은 개성을 추구하는 이들의 구속과 억압을 싫어하는 기호에 의해 넉넉함을 추구하며, T.P.O의 개념을 무시하는 의복 행동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액티브 스포츠 웨어와 스포츠 유니폼 스타일을 추종하며, 옷의 착용 방법이나 형태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착장 형태를 보여준다.



<사진 3> 범거리모자와 버뮤다팬츠를 입은 스케이터들 (Ecole, 1998, 4.)

하이패션에 나타난 힙합룩은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루즈한 실루엣과 아이템을 도입한 스타일이고 두 번째는 부분적인 디테일을 응용한 스타일이다. 그 예로 아디다스 룩의 특징적 디테일인 세 개의 선장식은 셔츠에서 팬츠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이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디테일이 스포츠 웨어뿐만 아니라 캐주얼 웨어에서도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90년대 패션을 주도하는 스트리트 패션인 힙합을 컨셉으로 하는 캐주얼 멀티샵이 등장하면서 힙합패션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공간으로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는 장소도 조그맣게 제공하고 있다. 선배들이 구해온 외국의 전문지나 비디오 테이프에서 보여지는 전문 브랜드 기술 등을 하나 들씩 터득하는 이들이 스타로 자리잡고 있는 전문 스케이터가 입는 의상을 추종한다. 면티셔츠나 프린트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제 제품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어느 전문 보더가 입었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이고, 이들은 스피드와 고도의 기술로 극한 상황에 조금씩 도전하는 습성과 쇼우맨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패션이 관중과 동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쓴다. 보더판의 그림과 어울리는 모자와 백팩 프린트셔츠, 후드티, 신발, 선글라스, 액세서리 등 스케이터들이 보여주는 패션은 다양하다.²³⁾ 또한 힙합패션에서는 스노우보드와 스키, 수영 등 스포츠의 영향으로 고글이나 수영모자와 같은 악세서리들을 착용하기도 한다.<사진 4>

2. 보더리스(boderless)

보더리스(Boderless)라는 개념은 간단히 경계의 무너짐, 내지는 상호영향 주고 받기(interactive)로 정리 될 수 있을 것이다. 패션분야에 있어서 보더리



<사진 4> 캥골, 선글라스, 스포츠 시계
(The Source, #109, 1998. 10.)

스 현상은 현재 아주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될 만큼 확산되어져 있다. 1970년대부터 완성된 유니섹스 모드는 패션에 나타난 보더리스 현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T·P·O의 개념의 중요성이 약화되어진 것이라 하겠다. 즉 산업혁명 이후 기능주의에 의해 확립된 포멀 웨어(formal wear)와 인포멀 웨어(informal wear)의 개념이 모호해진 것이다.²⁴⁾

기존에 우리가 옷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에서 보더리스 패션은 시작된다. 가장 일반적인 틀조차 파괴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아이가 개념 없이 옷을 입은 모습을 연상해 보면 되는데 아이에게는 특별히 강요되거나 규정된 틀이 없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는 무척 자유롭다. 그래서 그냥 느낌대로 입는다. 신발조차도 거꾸로 신기도 하고 <사진 2>처럼 스타킹을 머리에 뒤집어쓰기도 한다. 아빠의 양복을 밀단을 끌면서 입고 다니고 형의 허리띠를 허리에 둘러보기도 한다.²⁵⁾ 이러한 보더리스적인 경향은 이미 패션에 상당한 부분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요즘의 1990년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힙합패션에서 더욱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 마치 아이의 옷을 입은 것처럼 아주 피트되어

23) 섬유저널, 1997. 9, pp.106-107.

24) 김민정, "20세기말 패션에 나타난 crossover에 관한 연구", 1995, p.16.

25) 패션 투데이, [70년대의 청년문화, 90년대의 신세대 문화], 1996. 5, pp.34-35.

팔도 짧고 배꼽도 노출되는 셔츠나 속옷을 보이도록 입은 팬츠(사진 5), 길게 늘어뜨린 허리띠, 라벨을 그대로 붙인 채 쓴 모자 등 기존의 틀을 부수고 아무런 기준이나 틀이 없는 상태에서 재구성되는 분위기가 젊은 디자이너를 주축으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다. 이는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능동적인 청소년들의 개성표출 욕구에서 비롯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사진 5> 속옷이 보이도록 입은 팬츠
(Sport & Street, COLLEZONI, N.5, 1997)

보더리스의 경계 없음과 상호영향 주고받기는 하위문화의 하이패션화 경향에서도 나타나는데, 힙합 스타일이 진보하여 힙합글램(hiphop glam)룩을 만들었다. 빈민한 슬럼지역에 살아도 옷은 근사하게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류지향추구의 성격이 힙합 래퍼들에 의해 큰 성공을 거두었고 조금은 남성들의 문화로 한정된 면이 있었으나 최근에 립 킴, 엘리엇, 매리 블리즈 같은 흑인 여성 아티스트들에 활약이 두드러져 섹시하고 화려한 힙합 글램룩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들은 베르사체나 들

제 앤 가바나의 타이트한 슬립 원피스에 모피를 두르고 사치스러운 악세사리를 걸쳐 힙합 스타일의 화려하고 요란한 힙합글램룩을 유행시키고 있다.²⁶⁾

3. 젠더리스(genderless)

패션에서 성별 코드를 어기는 것은 여러 세기에 걸쳐 사회적 일탈자로 낙인 찍히거나 심지어 감옥이나 정신병원에 갇히기에 충분한 행동이었다.²⁷⁾ 그러나 20세기로 접어들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온 복식을 통한 성의 영역에 대한 크로스오버(crossover) 현상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유니섹스 스타일과 1980년대 중반부터 대두된 앤드로지니어스 스타일로 서 정착되어가고 있다. 복식에 있어서 성의 무효화 혹은 혼재의 현상은 사실상 하이 패션(high fashion)에서 보다는 테디 보이(Teddy boy), 모즈, 핑크 등의 청소년 하위문화집단들의 거리패션을 통해 주도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성의 혼재현상은 팝 가수들에 의해서도 자주 시도되었는데, 대표적인 가수로는 1950년대 리트 리처드(Litte Richard),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 1970년대의 데이비드 보워(David Boroie), 1980년대의 보이 조지(Boy George), 프린스(Prince), 안니 레노이(Annie Lennoy) 등을 들 수 있다.²⁸⁾ 처음에는 청바지나 점퍼, 스웨터들의 아이템들이 청소년들에 의해 수용되다가 오늘날에는 스포츠 웨어나 진즈 웨어의 보편화와 함께 남녀노소 모두가 공유할 만큼 일반적인 스타일로 자리잡았다.

트레디셔널 계열의 디자이너들인 캘빈 콜라인(Calvin Klein)이나 랄프 로렌(Ralph Lauren)은 스웨터, 진, 셔츠 등의 캐주얼 웨어를 통해 젠더리스 스타일의 대중화를 선도한 대표적 디자이너이다.

힙합패션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거의 똑같은 옷을

26) Vogue 1998, 11.

27) 더글라스 켈너(Douglas Kellner), 「미디어문화」, (서울:새물결), 1997, p.472.

28) 김경옥, “현대패션에 나타난 Androgynous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18.

입는 유니섹스 모드가 일상화 되어있다.²⁹⁾〈사진 6〉 그들은 남녀의 문제보다는 인간 대 인간이라는 생



〈사진 6〉 집업 카디건과 카고 팬츠 (Sport & Street, COLLEZONI, N.9, 1998)

각으로 남녀의 차이에 구별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 역할들도 불명확하며, 이러한 의식은 젠더리스 스타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근거가 된다.

힙합룩은 우리 나라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패션을 기점으로 하여 나타나기 시작하여, 젠더리스 패션으로서, 남녀의 성을 초월한 성의 평등성과 편안함을 추구하며, 거리에서의 캐주얼한 감각이 스포티브 감각뿐 아니라, 엘레강스나 글레머스 감각까지 융합하여, 젊은이의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다양한 감성을 반영하여 남녀 성구분, 흑백의 인종 경계를 해체하였다.³⁰⁾〈사진 7〉

V. 결 론



〈사진 7〉 백팩과 스포츠 점퍼 (Ecole, 1998. 4)

힙합은 현대패션에 있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힙합은 흑인으로부터 형성된 음악과 춤, 패션 그리고 그들의 철학과 생각을 동반한 것이며 동시에 라이프 스타일을 뜻하는 것이고, 힙합패션은 20세기 대중문화의 다품요로움 속에서 대중음악의 영향을 받아 시대정신과 상황을 반영하며 발생되었다. 그리고 힙합패션에 영향을 준 대중스타들의 의상은 개인의 감성 표출이라는 필요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대중패션을 선도하는 패션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관계는 계속될 것이다. 미국에서 랩과 힙합은 테크놀로지의 새로운 사용, 록 음악 이후의 새로운 음악으로 각광 받아왔으며, 록이나 기존 팝 음악의 혁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시초의 랩과 힙합은 빈민가 흑인의 어려운 삶을 재현해왔으나, 이제는 많은 세계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어 하나의 문화

29) 조용수, 『한국의 신세대 혁명』, (서울 : LG 경제 연구원), 1996, p.94.

30) 김영주 · 김소영 · 양숙희, “한국 청소년의 거리패션 분석 연구”, 『복식문화학회』, 제5권, 제3호, 1997. 12, p.415.

로 나타나고 있다.

힙합패션은 대중음악에 영향을 받은 스트리트 패션으로 현대 패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 청소년 문화를 더욱 부각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구속받기 싫어하는 젊은이의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다양한 감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힙합패션은 힙합의 발전에 따라 형태가 변화되어 왔고, 특히 1990년대의 힙합 스타일은 스포츠의 영향을 받은 스포티브적 경향과 개성 추구의 보더리스 경향, 유니섹스 지향에 따른 젠더리스적 경향을 특성으로 나타내고 있다.

힙합의 발생과 문화적 요소에 대한 고찰과 힙합과 힙합패션의 시대적 변천,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힙합패션에 관한 구체적인 실례를 통한 본 연구는 앞으로의 스트리트 패션 연구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주제를 연구하면서 대중문화에 대한 연구는 논문을 비롯한 관련전문 서적 등을 이용하였으나, 힙합에 대한 자료는 신문, 잡지 등을 주로 사용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로는 음악, 미술, 영화, TV 등 각각의 문화현상과 관련된 청소년 패션 경향에 대한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국내 힙합패션의 표현과 특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계속되어 문화의 한 단면으로서의 패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서울:한울아카데미, 1998.
- 조용수, 「한국의 신세대 혁명」, 서울: LG 경제 연구원, 1996.
- 최정호·강현두·오택섭, 「매스미디어와 사회」, 서울:나남출판, 1997.
- Douglas Kellner, 김수정·정종화 역, 「미디어문화」, 서울:새물결, 1997.
- Polhemus Ted, 「Streetstyle」, London:Thames and Hudson, 1994.
- 김경옥, “현대패션에 나타난 Androgynous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김민정, “20세기말 패션에 나타난 Crossover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김영주·김소영·양숙희, “한국 청소년의 거리패션 분석 연구”, 복식문화학회, 제5권, 제3호, 1997, 12, pp.396-417.
- 이가영, “신세대 의복행동에 나타난 TV의 영향에 관한 연구 -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정은숙, “의류산업계 광고전략과 가수들의 패션에 관한 연구”, 복식, 제 29호, 1996.
- 정해순, “팝뮤직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국제섬유신문, 1998. 6. 8.
- 동아일보, 1997. 5. 13.
- 주간조선, 1998. 8. 2.
- 중앙일보, 1997. 12. 17.
- 섬유저널, 1997. 9.
- 섬유저널, 1997. 10.
- Fashion Today, 1996. 5.
- News Week, 1996. 3. 6.
- Outside Collection, 1997. 10.
- Sport & Street, COLLEZONI, N.3, 1996.
- Sport & Street, COLLEZONI, N.5, 1997.
- Sport & Street, COLLEZONI, N.6, 1997.
- Sport & Street, COLLEZONI, N.9, 1998.
- The Source, #109, 1998. 10.
- Vogue(korea), 1998. 11.